LOCAL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함평, 합계출산율 '전국 9위' 성공적 모델 제시

지난해 1.3명 기록…출산 장려·교육·일자리 등 성과

이상익 군수 "기업 유치 등 총력…지역 발전 견인"

함평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9위에 오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4년 함평군의 합계출산율은 1.3명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75명을 크게 상회했다. 2022년 0.881명, 2023년 1.217명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출산율 상승의 배경에는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과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정책의 성공 결과라고 분석했다.

군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했다.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재양성기금'을 운영하며 대학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함평군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맞춤형 유아·보육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 교육 체계를 마련해 학생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골프 특성화 교육 등 지역 특화 교육을 통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 인재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교육 체계를 구축해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청년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함평군 내 기업 수는 290개로, 2022년 249개 대비 31개가 증가하는 등

이상익 군수는 "출산 장려 정책을 비롯해 교육·취업 지원, 기업 유치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빛그린산업단지를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 단지로 조성 중이며,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 유치로 청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중이다.

군은 출산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등이 있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군은 출산 시 출산장려금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연 1200만원, 아동급여 연 120만원 등 출산과 함께 1년간 최대 182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출산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출산 장려 정책을 비롯해 교육·취업 지원, 기업 유치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며 "함평군이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화순, 난 명품박람회 이벤트

15일까지 전 품목 25% 할인

화순군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6회 화순 난 명품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전 품목 25% 대폭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벤트는 박람회 기간을 포함,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한다.

25% 할인 쿠폰은 전 품목에 최대 5만원 한정으로 화순팜의 회원에만 적용되며, 본 이벤트 기간에 가입한 신규회원 중 선착순 200명에게는 4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2월 말 기준 화순팜은 입점 업체 126개소를 확보했으며, 390여품목을 판매 상품으로 관리한다. 매 시기 입점 업체별 농수산물의 출하 시기 및 공급 가능 시기 등을 반영해 판매 가능 품목을 수시로 조율해 운영 중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신안, 1004섬 춘란전시회

15~16일 국민체육센터 개최

신안군은 오는 15~16일 암태도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제14회 1004섬 춘란전시회'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신안난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신안의 명품 춘란을 알리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 화예품 150여점이 출품되며, 다양한 품종과 아름다운 춘란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안난연합회 7개 난우회 회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배양한 출품작들로 대상을 포함한 50점을 두고 경합한다.

춘란은 우수한 품질과 아름다움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보름달, 천운소 등 명품란의 자생지로 해양성기후의 자연환경에서 자생해 다른 지역의 춘란에 비해 뛰어난 특성을 자랑하고 이 지역의 환경과 문화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전시가 춘란 애호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춘란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환경과 문화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1004섬 춘란전시회가 신안의 문화 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신안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고흥,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첫 운행 시작

이달 중순까지 5대 투입…하반기 3대 추가 도입

고흥군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군은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이번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했다.

전기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장착돼 있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이 불편한 승객들이 쉽게 승하차할 수 있다. 또한 저소음과 낮은 진동으로 승차감이 편안해 군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업체는 안전성 검증 및 운행이 어려운 구간을 파악하기 위해 하루 동안 시험 운전을 진행했으며, 도로 지면이 고르지 않거나 과속방지턱이 과도하게 높은 구간을 제외한 노선에 먼저 저상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일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1대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총 5대를

모두 운행한다. 하반기에도 전기 저상버스 3대를 추가 도입해 도입률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첫 도입으로 군민과 교통약자는 물론, 고흥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순천 환선정 현판' 전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1613년 배대유·1886년 이범진 현판 2점

순천시는 조선시대 순천의 도시 상징 건축물 '순천 환선정 현판'이 전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순천 환선정 현판은 1543년 순천부사 심통원이 동천 인근에서 활쏘기를 연습하는 사정과 휴식, 정무 공간으로 지은 환선정에 걸린 현판 2점이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1613년 배대유 선생이 쓴 현판(130㎝×55㎝)과 1886년 순천부사 이범진이 쓴 현판(340㎝×120㎝)이다.

배대유 현판은 '환선정(喚仙亭)' 세 글자를 초서·행서·해서의 세 가지 서체로 썼는데, 편액 글씨를 각기 다른 서체를 사용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서예사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이범진 현판은 그 규모가 일반 현판의 3배 크기로 압도적이고, 초서로 쓴 글씨는 필획의 부드러움과 큰 글자가 주는 웅장함 등에서 이범진의 창의적 예술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이범진은 대한제국 초대 러시아 공사로 아들 이위종 지사와 함께 1907년 헤이그 특사 활동을 지원했고, 국치를 당하자 순절한 애국지사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영암군은 오는 14일까지 귀향인과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귀향인 주택 마더하우스 수리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영암, 귀향·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추가 모집…마더하우스 3500만원·소규모 500만원

영암군은 오는 14일까지 귀향인과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귀향인 주택 마더하우스 수리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귀향인 마더하우스 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1974년생 중 농촌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또는 영암군 전입 5년 이내인 군민이 본인 또는 부모의 집을 수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선정 귀향인에게 창호·도배·장판·방수·단열 시공, 화장실 수리 등 주택 내·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을 받으면 주택 리모델링 후 '주거형'은 7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형'은 7년 이상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는 조건이다.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지원사업은 농촌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영암군 전입 5년 이내인 65세 이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보일러, 지붕, 화장실 등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큰 사업이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